

## 샤프의 전략적 선택

- 일본 샤프가 여러 가지 경영재건 방안을 검토한 끝에,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의 매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
- 홍하이는 샤프의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에, 샤프는 홍하이의 자금지원으로 경영재건에 각각 주력할 계획

### □ 매수 배경

- 창업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샤프가 경영재건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,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의 매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
  - 샤프는 홍하이, 산업혁신기구 등 여러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의 매수 또는 자금지원 제안을 받아왔는데, 이번 출자를 포함하여 7,000억엔 규모의 지원을 받아 홍하이의 계열로 편입되게 됨
  - 샤프는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의 제안보다 홍하이의 지원규모가 크고, 미국 애플에 액정패널 공급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
  - 샤프는 액정사업 부진으로 2015년 3월 결산기에 2,200억엔 이상 최종적자를 내고 2016년 3월 결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단독으로는 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출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임
- 저비용생산에 강한 홍하이와 액정의 기반기술을 가진 샤프의 경영자원을 결합시켜, 커머디티화가 진전된 전자산업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갔다는 것이 이번 매수의 목적임
  - 홍하이는 전자기기의 수탁제조서비스(EMS)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서 전기·전자사업에 수평분업형 사업모델을 확장시킨 대만 기업임
  - 일본 샤프는 창업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전たく와 액정TV 등 독창적인 상품개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2000년대부터는 액정기술로 TV의 박형화를 추진

- 일본의 초대형 전자업체가 외국기업의 계열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으로, 샤프는 홍하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부진한 액정분야와 가전 등 주력사업을 강화하고, 근본적인 경영재건을 서두를 계획임

## □ 홍하이의 경쟁력 강화 계획

- 샤프의 경영권을 쥐게 될 홍하이는 샤프의 액정사업과 SDP(홍하이와 샤프가 공동출자하는 사카이 디스플레이 프로젝트)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
  - 이와 관련하여 홍하이 측은 스마트폰과 TV용 유기EL패널 양산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, 유기EL 분야에서 선두 주자인 한국을 추격하겠다는 입장
- 홍하이는 스마트폰 등 최종제품의 조립만이 아니고 부품 등도 포함하여 광범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수직통합형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
  - 액정패널 분야에서는 산하에 대만 업체인 群創光電(이노렉스)를 거느리고 있음
  - 그러나 기술력에서 떨어져 스마트폰용 분야에서는 수요개척이 늦어지고 있음
- 광대명 홍하이 사장은 샤프의 기술이 훌륭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, 샤프의 액정기술과 홍하이의 저비용생산 노하우를 결합하면 고품질의 패널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함
  - 패널은 스마트폰 부품가운데서 가격대가 높고 애플의 아이폰이나 중국·샤오미의 스마트폰에 공급할 수 있으면 수익확대를 예상할 수 있음
- 홍하이는 주력 생산거점인 중국의 인건비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익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
  - 주력 EMS사업 이외에도 통신, 자동차부품 등에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음
- 샤프의 센서 기술 등은 홍하이가 목표로 하는 자동차 관련 사업의 확대와 공장의 생산자동화로 이어질 전망
  - 샤프의 공기청정기는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뛰어나 홍하이의 제휴사인 아리바바 그룹의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가능하다고 함

- 홍하이의 2015년 12월 결산기 연결매출액은 전기비 6% 증가한 4조 4,830만 대만 달러인데, 앞으로 10조 대만달러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샤프 매수를 그 기폭제로 삼겠다는 것


< 홍하이 정밀공업의 개요 >

본사	대만
창업년도	1974년
종업원	100만명 이상(추계)
생산거점	중국, 브라질, 멕시코, 인도, 체코, 미국 등
운영사업	EMS(전자기기의 수탁제조서비스) :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, 일본 소니사의 TV 등을 수탁생산
	액정 패널 생산·판매 : 산하에 대만의 액정패널 이노렉스(群創光電)소유
	자동차 부품 등 : 대만의 부품업체를 매수,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렌트사업 운영
	통신 : 대만에서 휴대전화 캐리어사업 운영
	데이터센터 운영 : 중국, 대만에서 NEC 등과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

## □ 샤프의 경영재건 계획

- 샤프는 홍하이로부터 지원받을 자금을 사용하여 침체된 연구개발, 설비투자를 가속화할 예정
  - 홍하이측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1,000억엔을 기존 액정사업에 투입하는 외에 2,000억엔을 신규 사업인 유기EL 분야에 배분
- 샤프가 가진 에너지절약 성능 면에서 뛰어난 IGZO 기술을 유기EL패널 분야에도 응용, 고기능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단말기용으로 전개할 계획
  - 가메야마(미에 현 소재)에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2018년 초부터 양산을 개시, 스마트폰용 유기EL패널로 연간 2,600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액정패널분야에서도 개발 등에 1,000억 엔을 투자하고, 가전과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모든 재화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oT 기술에 450억 엔을 투자할 예정이며, 종업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

## □ 샤프·홍하이 제휴의 의미

-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에 의한 매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무엇보다도 주력인 액정 패널사업의 오랜 부진으로 단독으로는 경영재건이 어렵다는 판단이 근거를 이루고 있음
- 이는 그동안 전락과 액정TV 등 독창적인 상품개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던 일본의 명문기업 샤프라 해도, 글로벌 경쟁 하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만 있다면 외국기업 산하에라도 들어가야 함을 말해줌
  - 이 대목에서 샤프의 경우, 특히 영업이익의 액정의존도가 50%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만큼, 액정사업의 부진은 구조전환과 재무기반, 그리고 상품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어렵게 만들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
  - 이에 샤프로서는 홍하이라는 타사와의 제휴를 구명줄로 활용하려 했는데 다행히 홍하이가 탐내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홍하이와의 제휴가 가능했던 것임
- 한편, 전자기기의 수탁제조서비스(EMS)로 급성장한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은 샤프 매수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액정과 유기EL패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
- 홍하이는 특히 샤프의 기술력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패널을 양산, 이 분야에서 선행주자인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을 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. 

## 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6.2.25/26)